



## “배우가 더 고통스러워야 해요”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치매걸린 은퇴한 범죄자 역  
“건조한 얼굴 위해 10kg 빼”

“노려한 게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노력 안 하면 그건 100% 티가 나요.”

배우 설경구(50)는 새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감독 원신연)을 준비하면서 몸무게 10kg를 감량했다. 꽤나 고통스러운 일일테지만, 사실 몸무게를 늘이고 줄이는 건 그에게 큰 일이 아니다. ‘오아시스’(2002)를 하면서 무게를 줄였고, ‘역도산’(2004)을 할 때는 최대로 찰랐다. 어떤 작품을 만나도 그는 그랬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찌워야 할 것 같으면 찌웠고, 빼야 할 땐 뺐다. 그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체중 관리는 그가 어떤 배역을 맡으면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기 행위다. 이번 작품에서 살을 빼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는 이유가 더 있었다. 설경구가 무게를 줄여간 건 그가 연기한 ‘김병수’라는 인물이 ‘그럴 것 같아서’ ‘그레이판 하나까’라는 단순한 이유도 있었지만, ‘김병수’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던 게 더 컸다.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을 찌우고 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죠. 김병수의 얼굴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그 사람의 얼굴이 궁금하다는 게 큰 이유였죠. 제가 보고싶던 이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살을 빼 겁니다.”

김영하 작가의 동명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연쇄살인마가 주인공이다. 이 인물이 여타의 작품이 그리는 살인마와 다른 점은 그가 이미 17년 전에 연쇄살인을 그만둔 은퇴한 범죄자라는 거다. 게다가 그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서서히 기억을 잃어간다. 이 사람이 바로 설경구가 연기한 ‘김병수’다.

그는 “잘 모르겠지만, 기를기가 꼭 빠진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식사를 줄이고, 운동을 했다. 대신 근육을 키우는 식의 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살을 여러 번 뺐는데, 앞서 했던 것과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다. 매우 건조해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말했다. 설경구는 “아직 영화를 한 번 밖에 보지 못해 영화 속에서 보여준 얼굴에 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했다.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설경구의 얼굴을 잡는다. 분명 강렬하다. 그의 얼굴이 이전의 설경구에게서 본 적 없는 얼굴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전작인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떠올리면 그 간극은 더 크다.



“아주 흔하게 들었던 말인데, 요즘 이 말을 다시 떠올려요. 배우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야 관객이 풍성하게, 풍부하게, 즐겁고 재밌게 본다는 말이요. 전혀 고민하지 않은 얼굴을 관객에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이번 작품에서 설경구의 또 한 가지 고민은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표현이었다. 병의 특성상 실제로 경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물론 경험담을 듣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건 상상밖에 없었다. “원신연 감독과 자주 이야기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갔습니다. 대화하고 상의하면서 김병수를 만들어 갔어요.”

그는 전작인 ‘불한당’과 이번 작품 ‘살인자의 기억법’을 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작품으로 꼽았다.

“터닝포인트라고 거창하게 말할 건 없어요. 그 단어는 나중에 위해 남겨두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작품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건 있어요. 절 더 치열하게 만들었어요.” /뉴스

## ‘악뮤’ 이수현, 바쁜 스케줄 속 재능기부 눈길

무민전 오디오 가이드 참여  
판매 수익금 중 일부 기부

남매듀오 ‘악동뮤지션’의 이수현이 오디오 가이드로 재능기부에 나선다.

지난 31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수현은 9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는 ‘무민 일화전’ 오디오 가이드에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한다.

YG는 “이수현이 바쁜 스케줄에도 목소리 재능기부 참여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평소 이수현이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고 ‘무민’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무민(Moamin)의 고향이기도 한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맞아 최초로 국내 관객에게 소개되는 자리다.

무민을 만든 토베 안손이 직접 그린 일화부터 제작진이 소장한 미공개 작품까지 70여 년이 넘는 무민의 연대기를 한 자리에



서 볼 수 있다.

전시 기획사 측은 “이번 오디오 가이드는 상큼발랄한 이수현과 상냥한 무민의 이미지가 잘 부합해 관객들이 원화 작품에 보다

쉽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디오 가이드 판매 수익금 일부는 ‘승일희망재단’에 악동뮤지션 이름으로 기부된다. 투게팅병 환우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총 7개의 색선으로 구성된다. 350여 점의 원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주축으로 무민 라이브러리, 무민 영상관 등 관람객이 작품을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공간이 함께 마련된다. /뉴스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 한 장면

##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 극장가 강타

예상 개고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1위 올라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감독 패트리 휴즈)가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지난 31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킬러의 보디가드’는 전날 380개관에서 1739회 상영, 12만3601명을 끌어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날 매출액은 7억4900만원, 매출액 점유율은 22.09%였다.

‘킬러의 보디가드’의 흥행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평가다. 영화는

이날 10위권 안에 든 작품 중 4번째로 적은 상영관을 확보하고도 가장 많은 관객을 불러모으는 저력을 보였다(‘장산범’ 336개관, ‘혹성탈출: 종의 전쟁’ 241개관, ‘공범자들’ 171개관).

흥행세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매 관객수 2만436명(예매 점유율 21.0%)으로 예매 순위 1위에 올라섰다.

같은 날 개봉한 워크 베흐 감독의 ‘발레리안: 천 개 행성의 도시’는 7만778명이 봐 4위, 셸리시 시란이 주연한 ‘아토믹 블론드’는 2만7624명으로 6위에 머물렀다. /뉴스

## 마룬5, 새 싱글 발매

인기 팝밴드 ‘마룬5(Maroon 5)’가 새 싱글 ‘왓 러버스 두(What Lovers Do)’를 발매했다고 소속사 유니버설뮤직이 지난 31일 밝혔다.

‘돈 워너 노(Don't Wanna Know)’와 ‘콜드(Cold)’에 이어 새롭게 공개되는 곡이다. 청량함이 느껴지는 리드 보컬 애덤 리바인의 목소리가 사랑에 시작하기 앞서 애타는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미국의 신

인 뮤직션 시자(SZA)가 피쳐링에 참여했다.

앞서 발매한 ‘돈 워너 노’는 유튜브 조회수 3억2000만 뷰와 10개국 차트 10위권을 기록했다. ‘콜드’는 현재까지 유튜브 조회수 1억4000만 뷰를 기록 중이다.

그레미상 3회 수상에 빛나는 마룬5는 국내 가온 차트 해외 음원상 5회를 차지하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마룬5는 현재 미국 투어를 진행 중이다. /뉴스

## 트와이스, ‘시그널’까지... 5연속 유튜브 1억뷰 돌파

대세 그룹 ‘트와이스’의 미니 4집 타이틀곡 ‘시그널(SIGNAL)’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

지난 31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공개된 ‘시그널’ 뮤비는 전날 오후 7시55분께 1억뷰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시그널’에 이르기까지 5연속 1억뷰 돌파라는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트와이스는 지난 5월26일 ‘TT’ 뮤비로 K팝 여가수 사상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2억뷰를 돌파했다. 지난 9월 ‘치어 업’ 뮤비 역시 2억뷰를 넘어서며 K팝 여가수 최초로 2억뷰 뮤비를 2개 보유한 팀이 됐다.

JYP는 “세계 걸그룹으로 범위를 확장해도 2억뷰 뮤비를 보유한 팀은 피프스하모니, 리틀 믹

스, 스카이스 걸스, 푸시캣 돌스 정도라 유튜브에서 트와이스의 영향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30일 오후 기준 ‘우아하게’는 1억 8605만뷰, ‘치어 업’은 2억 721만뷰, ‘TT’는 2억 5388만뷰, ‘낙낙’은 1억 3648만뷰를 돌파하며 순항중이다.

트와이스의 해외에서 인기는 각종 기록이 입증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 일본에서 발매한 데뷔 베스트 앨범 ‘#트와이스’는 오리콘 일간 앨범차트 1위를 차지했다. 25만장이 판매돼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음반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한편 트와이스는 최근 JTBC ‘패키지로 세계일주-몽쳐야 뜬다’ 촬영차 베트남 다낭을 방문했다. /뉴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